

古書 매매관행에 대한 ‘정당한 반란’

판매가 공개로 古書街에 새바람 일으키는 朴大憲씨

“책 속에는 만가지 祿이 저절로 다 들어있다”는 말은 古書街의 젊은 일꾼 朴大憲씨(37·壺山房 주인)에 관한 한 조금도 가감없이 정확하다. 朴대헌씨에게 있어 그같은 원칙은 특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찌면 철저하기까지 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고상한, 그러나 결국은 어설플 수밖에 없는 ‘문화’의 의상을 입히려 하지 않는다. 고서매매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문화적 의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고서를 팔고사는 일은 일차적으로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에 굳이 문화적 의미를 갖다붙이는 것은 아마추어의 어설플일 뿐입니다. 저는 당당한 프로를 지향합니다. 밖에서 끌어당긴 의미를 애써 갖다붙이기보다는, 고서매매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책 속에 만가지 봉록이 들어있다

朴대헌씨의 그같은 노력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서관매가격의 공개. 구체적인 거래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가격이 형성되던 이제까지의 고서가 관행과는 달리, 상담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판매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고서매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앉아 있는 고서만큼이나 전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고서매매의 관행에 대해 그는 ‘판매가격공개’란 신무기로 일종의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반란의 도덕적 정당성을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죠. 고서점에 가서 가령

책 10권을 한꺼번에 살 경우, 서점주인으로 하여금 처음 제시했던 가격을 정확한 계산을 위해 되풀이하도록 하면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서로 달라지는 일이 혼잡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죠. 서점주인이 자기 임의대로, 그리고 고객에 따라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달리 제시한다는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도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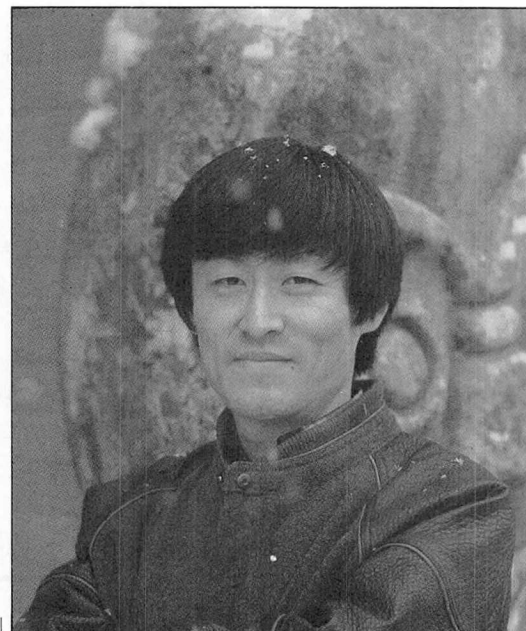
거래관행의 공정성회복이란 측면과 아울러 이 판매가격 공개는 또한, 고서자료의 원활한 회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판매가격의 공개는 매입가격의 암시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사실 고서점 하면 일반적으로 책을 파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팔 수 있는 물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수장가들의 서재 속에 숨어있는 자료들을 ‘끌어내’ 그것을 회전시켜야 고서점도 살고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판매가격 공개는 그런 점에서 매물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壺山房圖書目錄」의 간행. 1988년 1월 첫호를 간행한 이래 평균 두달에 한번꼴로 찍어내 현재 12호까지 나와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판매가격공개를 문서화하는 일인데, 그 첫호에서 朴대헌씨는 “고서의 공정한 평가를 꾀함은 물론, 고서가격을 공개 전시하여 고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학자 및 수집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도서목록을 간행하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켜켜이 앉은 세월의 먼지만큼이나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古書의 매매관행에 대해 朴대헌씨는 ‘판매가격공개’란 신무기로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그 반란의 도덕적 정당성을 굳게 믿는 그는, 판매가격공개 매물을 이끌어내는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고서유통의 원활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朴대헌씨

“혼자서 만드느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는 이 목록을 잘 만드는데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멀리 보아서는 훌륭한 학문적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가까이서는 이 목록작성 자체가 일종의 ‘판촉활동’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호산방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호산방을 거쳐간 자료들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이 목록집의 발행 부수는 호당 2000부 안팎. 단골고객들을 비롯해, 고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무료로 우송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서시장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제 경우, 고서가에 흔한 일입니다만, 좋은

자료가 나왔을 경우 특정개인을 지목해 전화로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보지 않겠느냐’는 식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록집에 그 자료를 가격과 함께 제시해 놓고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발견의 기쁨’이 가장 큰 보람이자 재미

그가 이처럼 철저한 공개의 원칙에 의한 고서매매를 고집하는 것은 “자료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이 가장 잘 보관하고 이용도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장서의 도서관 기증보다는 고서점을 통한 매매가 그 장서의 생명력과 활용도를 훨씬

1개월만에 재판단행

컬러에화집

돈이 보낸 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청소년 모범 도서로 선정된 양서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짙막한 예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짹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 7세 ~ 77세

<2천8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에세이집

내 놀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렇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칼럼집

고독이라는 교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고달픈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낙심하는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씨앗이 고일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체험적 메시지 84편.

<2천5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더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1988년부터 매년 가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고서경매전'도 이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아직도 우리 장서가들은 책을 판다는 행위를 썩 떳떳한 일로 여기지는 못하고 있다는데, 경매전 같은 행사가 그같은 떳떳치 못한 부담을 자연스레 덜어준다는 것이다. 경매전 자체가 자료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1953년 서울태생인 박대현씨가 본격적으로 고서가에 뛰어든 것은 1983년경. 대학을 졸업한 뒤 잠시 '딴 일'로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빈 손'으로 하기도 비교적 용이해보여 고서매매업을 시작했다. 처음 2,3년간은 제대로 책을 갖추지 못해, "그때래 치고는 제법 많이 모아두었던 자신의 장서"를 가지고 어렵사리 호산방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것이 점차 자리가 잡혀 이제는 먹고 살기에 썩 흠족치는 않아도 그런대로 '넉넉할'만큼 운영이 잘되어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물론 많았는데, 뭐니뭐니 해도 '발견의 기쁨'이야말로 고서상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의 말이다. 「梅窓詩集」을 번역한 신석정의 육필원고라든지, 조선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유명인사 365인의 서찰을 모은 12권짜리 서한집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실감나게 기억하고 있다.

고서목록 컴퓨터프로그래밍하는 작업도

"취미와 직업간의 드문 일치"를 말할 만큼 자신의 일에 재미를 느끼는 박대현씨는 천박한

상술아닌 비즈니스의 감각이 빼어난 것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다. 예컨대, 그는 호산방의 주아이템을 간찰이나 필사본 같은 유일본에 두고 있는데, 진위판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고서점과의 변별을 통해 "호산방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자는 욕심에서이다. 그는 고서점도 장차 대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신의 가게 같은 소규모 서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가게마다의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켜야 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요즘 그동안 정리한 도서목록을 컴퓨터프로그래밍화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고서와 첨단기술의 만남이라는, 언뜻 기이해보이기도 하는 이 컴퓨터작업에 대해 그는 "가령 제 가게를 거쳐 다른 주장가의 손에 들어가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고객의 문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것의 기초적인 서지사항을 비롯해, 간단한 내용소개 및 소장처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고문헌정보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자료들을 편집해 영인본으로 낼 욕심에 두해전 출판사등록까지 해둔 박대현씨는 가끔씩 '신간서점'도 둘러본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책의 품위와 격조가 요즘 책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는데, 고서상다운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깊이 음미해볼적이다.

"50년이나 100년 후에 고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을 출판인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점

“도서관행정 文化部로 이관돼야”

제43차 出協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權炳壹)는 지난달 30일 여의도전경련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3차 정기총회에서 현재 그 업무관장을 놓고 문교부와 줄다리기중인 도서관행정의 문화부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470여 회원사대표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출판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현대사회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기능과 목적을 더 우선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문화부로의 이관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 도서관업무의 신설문화부로의 이관작업을 서둘러 종결시켜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 결의문에서 출판인들은 “도서관행정은 도서관봉사활동의 기본적 매체인 도서의 생산·보급활동과 일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이원화돼 있는 출판 및 도서관행정을 종합적인 국가문헌정보정책으로 일원화하여 도서유통과 도서관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도서관행정의 문화부이관이 확정될 경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육성의 차원보다는 교육시설의 일부로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출판인들은 문화부에 대해서도 도서관 전담부서 설치로 문화원과 도서관의 기능을 통합, 균등한 문화향수 여건 조성 및 국민교양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복지 시설로서의 도서관 육성 및 발전계획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출판인들은 ①가칭 '공공도서관진흥법'의 제정 ②도서관 설치 및 기능의 충실화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 ③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통한 생활주변의 도서관 서비스거점 확보 ④도서관운영에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普成社

서울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 719-0784



‘글’ 더 잘쓰기 총서

어떤 글이랴 팔리는가

1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 金炳元저 값 3,500원

2 논픽션 쓰는 법

헤이즈B·제이콥스/金炳元 옮김 값 4,000원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 옮김 값 4,500원

4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값 4,500원

5 동화 쓰는 법

리와인담/李相琴 옮김 값 4,500원

6 그림책 쓰는 법

엘렌E·M로버츠/金正 옮김 값 5,000원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F·심버그/고정기 옮김 값 4,000원